소나무림, 웰빙 효과 없다

잣밤나무 등 상록수림에 비해 산소 농도 낮아

전남산림환경硏 조사

광주·전남지역 산림과 휴양림에 일반적으로 조성된 소나무림의 경우 산소농도가 낮아 '웰빙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잣밤나무 등 난대 상록활엽수림은 소나무 침엽수림에 비해 산소농도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전남산림환경연구소가 최근 광주시 두암동 무등산 낙엽활엽수림과 진도 첨찰산 난대림, 제주 남읍리 난대림 등 서남해안 지역 5곳의 상록활수림에 대한 산림 내 산소·탄소 동태를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22일 산림연구소가 내놓은 '서해안섬 상록수림의 웰빙효과 시험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지 5곳 중 산림 내 지상 산소 발생량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 난읍리 종가시나무림으로 이곳의 지상 산소농도는 22만1천500ppm으로 나타났다.

이어 완도 동화도, 진도 첨찰산의 잣밤나무림(21만6천ppm), 제주 선흘리 해송림(21만4천500ppm), 완도 동화도 해송림(21만3천ppm), 광주 무등산 굴참·상수리나무림(21만2천330ppm) 등의 순이었다. 반면 광주 무등산 소나무림의 산소농도는 20만900ppm으로 산림 외부 일반 대기 중 산소농도와 똑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남철 전임연구원은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 지역만의 난대림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5·18 휘호 입상작 전시

지난 21일 5·18 기념재단 대동홀에서 열린 '5·18 민중항쟁 제28주년 기념 제6회 전국휘호대회' 입상작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입상작 전시회는 오는 27일까지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친환경 농법이 준 선물

곡성 옥과서 '긴꼬리 투구새우' 발견

곡성군 옥과면에서 환경부 야생동물 보호종인 '긴꼬리 투구새우'(사진)가 발견돼 이곳이 청정 친환경 농업지역임을 입증했다.

22일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우렁이농법, 오리농법 등 친환경농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 결과 최근 옥과면 무창리 황등들 약 3ha에서 긴꼬리 투구새우가 발견됐다.

긴꼬리 투구새우는 3억5천만년 전 고생대 석탄기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과 현재의 모습이 거의 변하지 않아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린다. 특히 학술적 가치는 물론 박테리아, 조류, 모기유충 등을 먹고 살며 잡초가 자라지 못하게 해 벼농사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긴꼬리 투구새우는 농약살포 증가와 플라스틱 모판의 사용 등 경작방법이 달라지면서 그 수가 급격히 감소, 야생동물 보호종으로 지정됐다.

최고급 브랜드쌀 생산유통시범사업 대표 황철규(곡성군 옥과면 무창리)씨는 "올해 농사가 잘 될 징조"라고 기뻐했다.

/곡성=장필수기자 bun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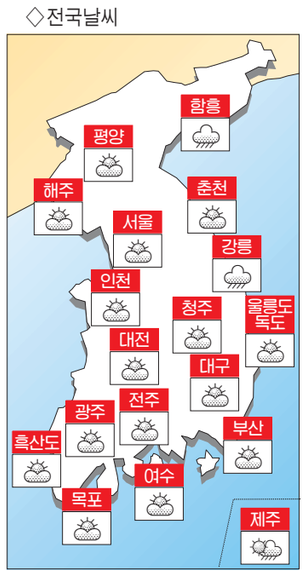
몰려오는 먹구름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며 구름이 많겠다.

6월 23일 (음 5월 20일) 날씨

◇전국날씨

광 주	구름 많음	20~26℃
목 포	구름 많음	19~25℃
여 수	구름 많음	19~24℃
완 도	구름 많음	20~26℃
구 례	구름 많음	20~25℃
해 남	구름 많음	20~27℃
장 흥	구름 많음	19~27℃
고 흥	구름 많음	18~26℃
순 천	구름 많음	19~25℃
영 광	구름 많음	18~26℃
진 도	구름 많음	19~27℃
전 주	구름 많음	20~28℃
남 원	구름 많음	19~26℃
흑산도	구름 많음	16~21℃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0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5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1.5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5m

목 포 밀물 05:00 17:02 썰물 10:21 22:16
여 수 밀물 11:39 --:-- 썰물 05:48 17:35

▲해뜸 05:19 ▲해짐 19:50 ▲달뜸 22:55 ▲달짐 09:12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4(화)	25(수)	26(목)	27(금)	28(토)	29(일)
날 씨						
최저/최고	20/24	20/24	19/28	19/29	19/28	20/29

1~2년전 고혈압 판정 813명 재신검

광주·전남은 50여명

병무청이 1~2년 전 고혈압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 중이거나 병역을 마친 사람들을 포함, 모두 813명에게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발송해 당사자들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병무행정에 정통한 군의 한 소식통은 22일 "병무청이 2006년 1월1일부터 2007년 7월31일 사이 실시된 신검에서 고혈압으로 4~5급 판정을 받은 813명에게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안다"며 "이 기간 총 856명이 고혈압으로 4~5급 판정을 받았지만 이미 43명은 사위행위자로 수사기관에 적발돼 병무청에서 재검을 받아 이번 대상에서는 제외됐다"고 밝혔다.

재검 대상자는 서울이 230여명으로 가장 많고 광주·전남은 50여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지방병무청에서 혈압측정을 위한 재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재검 대상자 가운데는 현재 공익근무 중이거나 공익근무를 마친 사람들도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합뉴스

장맛비 내일부터 다시 온다

이번 주 대체로 더운 날씨

소강상태를 보이던 장마가 24일(화요일)에 다시 한 차례 찾아온 후 이틀간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을 제외하고 이번 주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고 무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3일 광주·전남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며 구름이 많이 끼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0도, 낮 최고기온은 21~27도로 예상된다.

또 24일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져 비가 온 후 다음날 까지 이어지겠지만 이번 주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으며, 낮 최고기온은 최고 30도까지 올라가는 등 더운 날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장맛비속 촛불집회 이어져

광주선 '명박산성 등반' 퍼포먼스도

숨 고르기를 하던 촛불집회가 장마 속에서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휴일인 22일 '48시간 국민행동' 사흘째 일정을 이어갔다.

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48시간 국민행동' 일정의 마지막 촛불집회를 갖고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한 완전 재협상을 거듭 촉구했다. 앞서 주말인 21일에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 주최 측 추산 6만여명, 경찰추산 1만여명 참여한 '집중 촛불문화제'가 열렸으며, 휴일인 다음날 새벽까지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시위대는 지난 10일 경찰의 '컨테이너박스 설치'에 항의하는 취지로 세종로 사거리에서 모래 1t가량을 트럭으로 운반해 와 모래주머니에 담은 뒤 가로 2m·폭 3m·높이 3m '모래 토성'을 쌓는 퍼포먼스를 벌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전경 108개 중대 1만여명을 동원해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 곳곳을 차단했으며, 시위 현장에서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연모(31)씨 등 1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한편,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도 주말과 휴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촛불시위를 이어갔다. 서울에서는 '모래토성 쌓기' 퍼포먼스가 열린 반면, 광주에서는 이날 '명박산성' 등반 퍼포먼스가 열렸다. 시민들은 '명박산성'이라고 적힌 컨테이너 차량에 오른 뒤 뒤편에 설치된 청와대 모형에 물풍선 던지기 등을 했다.

시국회의 측은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통해 30개월 미만 SRM(광우병 특정위험물질) 및 내장·뼈의 수입 문제, 검역주권 문제 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며 "촛불집회를 계속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현주기자 ahj@·연합뉴스

전교조 "교육 정책·쇠고기 급식 저지"

내달 3일까지 '온나라 대행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가 지난 21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명박 정권의 교육양극화 조장 등 교육정책을 전면 전환시키고, 광우병 수입 쇠고기 학교 급식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교조 광주지부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시민을 상대로 홍보활동에 나서는 등 다음달 3일까지 '2008 온나라 대행진'을 펼칠 예정이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논란으로 안전성 확보가 취약한 학교 급식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촛불집회로 뛰쳐나오면서 전국민이 참여하는 이명박 정권 심판 투쟁으로 확산됐다"며 "이는 4·15 공교육 포기 조치, 물·전기·가스 등 민영화, 대운하 건설 등도 시민들에 의해 엄청난 반발을 초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을 전면 전환시키고 광우병 위험 쇠고기 학교 급식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다음달 3일까지 교육시민사회단체와 함께 '2008 온나라 대행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장마철 무등산 등반사고 '주의'

지난해 6·7월 15건 발생

광주 무등산에서 발생한 산악사고가 평소보다 장마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장마철 산행에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광주 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무등산에서 발생한 산악사고 건수를 조사한 결과 장마철인 6월에는 8건, 7월에는 7건 등 총 15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했다. 이 두 달 동안 장마기간을 제외한 평소 때 발생한 산악사고는 각각 1건씩이었다.

지난해 월별 산악사고 발생은 1월 6건, 2월 0건, 3월 4건, 4월 3건, 5월 4건 등으로 평균 5.3건이 발생했다. 100㎜의 폭우가 내린 지난 19일 오후 6시40분께 무등산 새인봉~중머리재 등산로에서 최모(38)씨가 빗길에 미끄러져 다리를 다쳤다.

또 지난해 7월17일에는 무등산 중머리재에서 박모(31)씨가 비속에 길을 잃고 헤메다 구조되는 등 장마철 실족·조난사고가 빈발했다.

동부소방서 허성구 구조대장은 "장마철에는 등산객이 10% 가량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장마철 산악사고 발생이 집중됐다"며 "장마철에는 가능한 등산을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 꼭 산행을 하겠다면 호루라기나 비옷, 비상식량 등 부상이나 조난에 대비한 물품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